

## ‘時計’의 차용

宋 敏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선 시대에는 시간을 측정하는 기기로 ‘자격루(自擊漏)’라는 이름의 장치가 있었다. 일종의 물시계로서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34(세종 16)년 이천(李戡), 장영실(蔣英實) 등이 왕명을 받아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 후 1631(인조 9)년에는 진주사(陳奏使)로 명나라에 들어갔던 정두원(鄭斗源)이 포르투갈 출신의 선교사 로드리게스(중국명 陸若漢, 진출)를 만나 ‘천리경(千里鏡)’과 함께 ‘자명종(自鳴鐘)’을 선물로 얻어 왔다. 서양 문물의 하나인 기계식 ‘시계’가 ‘자명종’이란 명칭과 함께 실물 그대로 국내에 처음 전해진 것이다. 이 때의 ‘자명종’은 ‘괘종 시계’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계시기(計時器, 영어로는 time-piece)로서의 ‘시계’라는 단어가 국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는 19세기 말엽부터인 듯하다. 우선 ‘시계’라는 어형이 국어에 정착하기까지 한동안은 중국에서 유래한 ‘자명종’과 더불어 신생어 ‘시종(時鍾), 시침(時針), 시표(時標, 時鏢, 時表), 시패(時牌)’와 같은 어형(語形)이 여기 저기에 쓰이고 있는 가운데 19세기 말엽부터는 ‘시계’라는 단어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개화 초기인 1876년 4월 동경에 도착한 수신사 김기수(金綺秀)는 숙소인 연료관(延遼館)의 한 실내에서 ‘시계’를 직접 대하게 된다. 그는 이를 ‘시

중(時鐘)’이라고 적고 있다(『日東記游』 권1 留館). 이 때의 ‘시중’은 ‘북쪽 벽에 걸려 있다(北壁懸時鐘)’고 했으니, 오늘날의 ‘괘중 시계’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또 ‘집에는 시중(時鐘)을 두고, 사람은 시침(時針)을 찬다(家置時鐘 人佩時針)’(『日東記游』 권3 俗尙)는 기록도 남기고 있다. 이로써 ‘시침’은 오늘날의 ‘회중 시계’ 아니면 ‘손목 시계’를 뜻하는 단어였음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때 ‘시중’은 ‘자명종’에 대한 대치어로서 신생어인 셈인데, 그 연원은 『해국도지』(海國圖志, 초간 50권 1844, 증보판 60권 1847, 재증보판 100권 1852)와 같은 중국 문헌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실제로 『해국도지』에는 ‘定時鐘 一日十二時 分爲晝夜二周(西洋器藝雜術)’에서처럼 ‘시중’의 용례가 나타난다. 이때의 ‘시중’에 대해서는 『한영즈던』(1897)에 ‘A clock; a timepiece. See 攄명종’으로 풀이되어 있어, 그 기본적인 뜻이 ‘괘중 시계’였음을 알 수 있다. ‘攄명종을 보라(See 攄명종)’는 첨기(添記)가 그 사실을 말해 준다.

결국 김기수의 ‘시중’과 ‘시침’은 현대국어로 정착된 ‘시계’의 하위어(下位語)에 해당하는데, 그 상위어(上位語)로는 ‘시표’라는 어형이 있었다. 『한불즈던』(1880)에 표제어로 나타나는 ‘시표 時標’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의 ‘시표’는 ‘Marque de l’heure, du temps; horloge; montre’와 같은 뜻풀이로 볼 때, ‘시진(時辰)의 표(表, 標)’라는 뜻과 함께 ‘괘중시계(horloge)’와 ‘회중시계(montre)’를 동시에 뜻하는 단어였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시계’에 해당한다.

‘시표’는 언해본 『이언』(1883?)에도 나타난다. ‘이제 중국의 헝헝는 재 화륜선과 양창 대포 외에 攄명종과 시표와 攄명악 ㄱ툰 완호지물은 다 유해무익한 거시로디(권지이 론괴괴)’가 그것인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문 ‘今行於中國者 輪船槍礮之外 如鐘表音盒 玩好等物 皆有損無益者(上卷 論機器)’로 보아, ‘鐘表’를 ‘攄명종과 시표’로 옮긴 것이다.

훨씬 나중이긴 하지만 『한영즈던』(1897)에도 ‘시표’란 표제어가 나타난다. 다만 그 표기가 『한불즈던』과는 달리 ‘時鏢’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일본식 표기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간행된 한 영어 사전을 들춰 보면

watch의 대역어(對譯語) 가운데 ‘時鏢’라는 독특한 표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尺振八 1884, 진출. 그 용례는 본고 말미 참조.). 『한영저단』에 일본어의 영향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전에 이미 지적해 둔 바 있다.

‘시표’에 대한 『한영저단』의 뜻풀이는 ‘A watch: a timepiece. See 시계’로 되어있다. watch는 ‘회중시계’나 ‘손목시계’와 같은 ‘휴대용 시계’를 뜻하지만, timepiece는 ‘계시기(計時器)’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시표’는 하위개념의 의미(watch)와 상위개념의 의미(timepiece)를 함께 나타내는 단어였음을 알 수 있다. ‘시계를 보라(See 시계)’는 첨기로 보아, 이 때의 ‘시표’는 ‘시계’와 동의어 관계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시표’는 중국의 ‘시진표(時辰表)’에서 나온 축약 어형일 것이다. 실제로 『해국도지』에는 廣州府에 들어오는 물화(物貨) 가운데 ‘자명종(自鳴鐘)’과 더불어 ‘시진표(時辰表)’가 예시되어 있다(英吉利國 廣述 上). 다만 ‘시표’의 ‘표’는 한자표기 상 ‘標, 鏢, 表’처럼 문헌에 따라 유동성을 보이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이긴 하지만 ‘시표’가 ‘時表/懷中時表/警醒時表’처럼 ‘時表’라는 표기로 나타나기도 한다(張志淵 1909).

이밖에도 『한영저단』에는 ‘시패 時牌’라는 어형이 나타난다. ‘A watch: a timepiece. See 시계’라는 뜻풀이로 볼 때, 그 기본적 의미는 ‘휴대용 시계(회중 시계, 손목 시계)’였으나, 일반적 ‘시계’라는 의미로도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계를 보라(See 시계)’는 첨기가 그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한동안 유동성을 보이던 이들 어형은 19세기 1890년대부터 ‘시계’라는 어형으로 굳어지기에 이른다. 우선 필사본 단어집 『國漢會語』(1895)에는 ‘시종 時鐘 自鳴鐘/시침 時針/시포(\* ‘표’의 잘못?) 時鏢’와 나란히 ‘시계 時計’가 나타난다. 또한, 같은 해에 출간된 한일 대역 단어집 李鳳雲(1895)에도 ‘時械 시계 도계이’처럼 ‘시계’가 나타나는데, 그 표기가 ‘時械’여서 특이하다. 그러나 이 때의 ‘時械’는 일본어 ‘時計’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로 보인다. ‘도계이’는 ‘時計’의 일본어 발음이기 때문이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학부 편집국이 처음으로 펴낸 근대적 교과서 『國民小學讀本』(1895)에 ‘時計’라는 한자어형이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世上에 時計나기 前에는 瓶에 모래를 담고 或 그릇세 물을 담아 그  
 맞히 小孔으로 물과 모리가 빠져나리는 分數를 보고 時刻을 알더  
 니……然으나 理學大家 [갈리레오] 라흐는 슝이 搖錘를 發明호 以  
 來로 슝마다 輕便호 時計를 가지게 되앗시니……(第十課 時計)/일  
 즉 그 度支大臣 하밀돈이 約束호 時間을 五分을 더디게 와서 제 時計  
 더댄 緣由를 告호니 [華盛頓] 이 그 말을 듯고 일으되 다시 精良호  
 時計를 求호미 올호니 不然則 시로 大臣을 求호겟다 호더라(위의 책  
 第二十五課 時間恪守)

마찬가지로 학부 편집국이 그 이듬해에 펴낸 『新訂尋常小學』(1896)에도  
 ‘時計’라는 한자어형이 나타난다. ‘一時間을. 六十으로分호거술. 一分이라일으  
 며그一分을. 또六十으로分호거술. 一秒라호읍는다. 이런時間은. 다. 時計  
 로셈호거시니(卷一 第六課 時)’. 더구나 이 책 권이(卷二)의 제22과는 ‘時計  
 를보는법이라 一’, 제23과는 ‘時計를보는法이라 二’로 이루어져 있다. 서양문  
 물의 하나인 기계식 ‘시계’가 점차 일상화하면서, 그 어형 또한 ‘時計’라는 한  
 자 표기로 이미 굳어졌음을 알려 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국어에 정착한 ‘시계’는 『한영조언』(1897)에도 ‘시계 時計, A  
 clock; a watch; a timepiece. See 시표’처럼 표제어로 나타나기에 이른  
 다. 이로써 ‘즈명종, 시종, 시침, 시표, 시괘’와 같은 한자어는 ‘시계’라는 새로  
 운 어형으로 대치된 셈인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세력은 더욱 확산되었  
 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시계’의 용례가 그 사실을 전해 준다. ‘근력스람들  
 이, 의복을, 찬란히입고, 조흔시계와, 단츄등을, 몸에지니고…(編輯局  
 1902, 『서례수지』 의복, 입는법)/ ‘時計ヲ 質ニ入レテ 酒ヲ飲ム奴ガ アルカ  
 時計를 典當잡혀서 술을 먹는단말이나(鄭雲復 1907, 『獨習日語正則』, 京城:  
 廣學書舖)’.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어의 한 단어로 편입된 신생어 ‘시계’는 일본어에  
 서 차용된 것이다. 앞에서 본 李鳳雲(1895)이나 바로 위에 예시된 鄭雲復  
 (1907)은 일본어 학습서인데, 여기에 ‘시계’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 신생어

가 일본어 ‘時計[tokei]’의 문자 표기에서 유래한 결과임을 암시하고 있다.

佐藤喜代治 편(1983, 진출)의 語誌 III에 포함되어 있는 ‘とけい(時計・土圭)’ 항목(齋藤倫明 집필)이나 田島優(1898)의 제2장 제1, 2절(pp.90-123)에 의하면 일본어의 경우 ‘시계’를 의미하는 단어 표기가 다양하게 나타나다가, 후대로 오면서 점차 ‘時計’라는 표기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발음 [tokei]는 본래 해시계를 뜻했던 고대 중국어 ‘土圭’의 일본식 발음 [tokei]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일본어에는 16세기 이래 ‘土圭’는 물론 ‘自鳴鐘, 斗鷄, 斗景, 斗計, 度計, 辰器, 時斗, 時辰儀, 時辰表(때로는 時辰錶 또는 時辰標), 時辰器, 時辰盤, 時辰鐘, 時針器, 時器, 辰器, 漏刻’과 같은 표기가 ‘時計’와 함께 나타나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일본에서 자생한 어형도 없지 않으나, ‘自鳴鐘, 時辰鐘, 時辰表’처럼 중국어에서 차용된 어형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음은 거의 대부분 [tokei]였다. 요컨대 이러한 이형태(異形態)가 결국 ‘時計’로 통일된 것이다.

일본에서 간행된 19세기 중엽 이후의 영어 사전류에도 그러한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Clock, 時辰鐘/clock-maker, 鐘表師傅/Watch, 時辰表/Watch-maker, 表匠(柳澤信大 1869)

Watch たもととけい/Clock かけ時計(どけい)(木村宗助, 1871)

Clock, *tokei*; *kake-dokei*/Clockmaker, *tokeiya*/Watch, ... (timepiece) *tamoto-tokei*; *kaichiu-dokei*; *tokei*.../Watch-maker, *tokei-ya*(Satow 1876)/Clock, *tokei*(c.); *kake-dokei* /Watch, ... (time-piece) *tamoto-tokei*; *kaichiu-dokei*; *tokei*... /Watch-maker, *tokei-ya*; *tokei-shi*(Satow 1879, 진출)

Clock, 時辰鐘. 掛時計(カケドケイ)/Clock-work, 鐘機. 時計仕掛(トケイジカケ)/Watch, ...○懷中時計. 時鏢/Watch-maker, 時計師(尺振八 1884, 진출)

Clock, 時計(トケイ). 槌. 自鳴鐘(リンウチドケイ)/Watch, 守

夜。時辰表(トケイ)…/Watchmaker, 鐘表匠(ドケイシ) (棚橋一郎 1885, 진출)

Tokei トケイ 時辰表 A watch, clock: *tamoto-tokei*, a watch: *hasira* —, a clock/*tokei-shi* トケイシ A watch or clock-maker (Hepburn 1886, 진출)

Clock, 時辰儀, 掛時計/Clockmaker, 時計師/Watch, …袖時計… (島田豊 1888, 진출)

맨 앞의 柳澤信大(1869)는 중국 문헌의 번각본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時辰鐘, 鐘表, 時辰表’ 등은 중국어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鐘機, 時鏢’와 같은 독특한 어형이 보이기도 하나, 19세기 말엽 이후에는 ‘時計’가 더욱 일반화하였다. 개화기가 무르익으면서 국어는 이 어형을 문자로 차용한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전번 호까지 이미 제시한 문헌은 생략함.

[약호] 柳澤信大(1869) = 英 斯維爾斯維廉士(Samuel Wells Williams 미 국인 선교사, 중국학자.) 著, 清 衛三畏(저자의 中國名) 鑑定, 日本 柳澤信大 校正訓點, 『英華字彙』, *An English and Chinese Vocabulary*, 東京 : 松莊館翻刻藏板.

[약호] 木村宗助(1871) = 木村宗助 · 小川金助 刊, 樵雲逸史 序, 『英字訓蒙圖解』, 西京(神田外語大學 創立記念 復刻板, 1987).

[약호] 李鳳雲(1895) = 李鳳雲 · 境益太郎, 『單語連語 日話朝雋』, 京城 : 漢城新報社.

[약호] 張志淵(1909) = 『萬國事物紀源歷史』, 京城 : 皇城新聞社.

田島優(1998), 『近代漢字表記語の研究』, 동경 : 和泉書院.